

전대 후보 등록 내일 마감... 이해찬 선택은?

민주 당권경쟁 최대 변수...최재성 공식 출마 선언 이종걸도 출마 임박...유승희·박주민 최고위원 도전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5 전당대회 경선 후보자들의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19일 당권도전 대진표가 완성되고 있다. 전당대회 경선 주자들이 잇따라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번 전대 경선 최대변수로 꼽히는 이해찬 의원(7선)의 등판 여부가 정되는 대로 대진표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질 것을 보인다.

사람으로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통해 한국 경제가 제2의 대도약을 맞을 수 있도록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취임 2개월 내에 공천률을 확정하고, 이를 특별 당규로 정해 전 당원과 전 대의원의 투표로만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략공천을 금지하고, 꼭 필요한 경우 전략경선 지역을 중앙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선의 김두관 의원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한책임, 지역분권, 당원주권으로 문재인정부 성공과 혁신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출마표를 던졌다. 그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단 하나,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향한 길"이라며 "저의 정치적 미래는 단 1%도 생각하지 않겠다."

오직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한 길, 끝없는 민주당 혁신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당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 이종걸(5선) 의원도 후보 등록일(20~21일) 전 출마 기자회견을 검토 중이다.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소속 설훈(4선)·이인영(3선) 의원은 이날 오후 3번째로 만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다. 두 의원 모두 당대표 출마 의지가 강해 적어도 26일 예비경선 전까지 각자 도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6선 이석현 의원도 당대표 경선 출마를 고민 중이다. 이미 출마 선언을 한 송영길(4선)·김진표(4선)·박범계(재선) 의원은 중앙위원회와 접촉을 늘리며 표심 호소에 나서거나 공약 알리기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권 예비주자로 꼽히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영선(4선) 의원이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노무현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인사는 "이 의원이 주변 얘기를 충분히 듣고 장교에 장교를 거듭하고 있다"고 전했다. 후보 등록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 의원이 조만간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의 경쟁구도 역시 윤곽이 거의 잡힌 모양새다. 유승희(3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더 강하고 유능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최고위원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조선의 박주민 의원은 오후에 최고위원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은 앞서 출마 선언을 한 박광온·남인순(이상 재선), 박정·김해영(이상 조선) 의원과 선출직 최고위원 다섯 자리를 놓고 경쟁을 펼친다. 재선의 전현희 의원은 최고위원 출마를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청와대 '2기 조직개편' 막바지 논의

교육·문화 비서관 분리 검토...다음주 최종안 발표

조직개편을 준비 중인 청와대가 사회수석비서관실 산하의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9일 "일부에서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을 분리할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며 "확정 단계로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이런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등학교 무상교육·공공육아 등 정부의 교육개혁 작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입시제도 개편 등 민감한 사안에 원활하게 대처하기 위해 청와대의 교육 정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청와대 내에서는 업무조정비서관 신설,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 통합 등 다양한 안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소상공인 전담 비서관을 경제수석실이나 일자리수석실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비서관직 신설이나 분리·통합 등은 인선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인데, 논의가 다 되지 않았다"며 조직개편안이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이번 주 내, 늦어도 다음주 초에 최종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 기자 tuim@

한국당 여의도연구원장에 김선동

김병준 비대위원장 첫 인사

자유한국당 김병준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신인 여의도연구원장에 재선의 김선동 의원을 임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사무총장에 3선 김용태 의원을, 비서실장에는 재선의 홍철호 의원을 임명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당직 인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서울 도봉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재선 의원으로 20대 국회에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다. 당내에서는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으로 통한다.

또 김용태 사무총장은 서울 양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3선 의원으로,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기획위원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혁신위원회 위원과 지난해 한국당 제2기 혁신위원장 등을 지냈다.

비서실장에 선임된 홍 의원은 재선으로, 지난 대선 때 유승민 바른정당(바른미래당 전신)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또 대변인으로는 현재의 운영석 의원을 유임시켰다.

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은 "정책적으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지를 회복해 능력 있는 제1야당의 면모를 보여겠다"고 말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민주당 "최저임금 죄 없어...문제는 재벌중심 경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평화상황실 공정경제팀이 19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민생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서 정책조정회의...재정확대 불가피론 부각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 등 경제 문제에 대한 야권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옹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고용을 비롯한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면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세금 낭비', '재정 중독'이라는 비판을 받아 과도기적 상황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연일 부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정에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약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생산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한국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준비 자본주의에 있

다"면서 "다시 노동자들을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몰아가고 구로공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경제가 살아나면 그렇게 하겠지만, 세계경제구조가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자원투입을 늘리는 외형적 성장의 시대가 끝나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는 내포적 성장의 시기로 전환해야 할 때"라면서 "대한민국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소득주도 성

장은 취약계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서 총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경제 체질을 만들자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재정을 쌓아두기보다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과감하게 사용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연일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각종 공개 회의 발언과 논평에 이어 19일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찾아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문대통령·여당 지지율 동반 하락

리얼미터...최저임금 여파 국정지지 61.7%·민주 41.8%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6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6~18일 전국 성인남녀 150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내린 61.7%로 집계됐다. 이번 지지율은 가상화폐와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으로 최저치를 찍었던 올해 1월 4주차(60.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하락 폭은 취임 후 가장 컸다.

여당이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당지지율이 지난주 대비 3.8%포인트 하락한 41.8%를 기록, 5주차 내림세를 이어갔

다. 이는 지난해 4월 4주차(39.6%) 이후 1년 2개월여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한 자유한국당은 2.5%포인트 오른 19.5%로 다시 20% 선에 근접했다. 한국당은 특히 부산·경남·울산에서 13.4%포인트 오른 36.6%를 기록, 1년 8개월여 만에 민주당을 앞섰다.

정의당은 1.4%포인트 내린 10.2%로, 지난 7주간의 오름세가 멈췄으며 바른미래당은 소폭 상승한 7.0%로, 4개월 만에 7%대를 회복했다. 민주평화당도 3.5%로 다소 오르며 4주차 만에 3%대를 기록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Approved Partner SIEMENS Hearing Instrument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